

News

은행권 가계대출 1조2000억 감소...기업대출 역대 최대

뉴스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1059조5000억...1조2000억 ↓, '주담대 9000억 늘고 신용대출은 2조1000억 줄어
한은, "디레버리징 전환, 아직 판단 어려워"

카뱅 주가 부진에 케이뱅크도 '골머리'...연내 상장 어려울 듯

이코노미스트

상장 기한 내년 3월...기업가치 높이기 박차
"경영진과 투자자, 적정 시가 총액 괴리"

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지속...매월 이자지급식도 있어

아시아경제

조달 비용이 늘어난 은행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이어지고 있음
투자자 확보를 위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도입

금리 급등에 카드사 '돈줄' 어떡하나... '카드론' 역마진 우려까지

이코노미스트

11일 여전채 AA+ 3년물 금리 5.728%...11년來 최고
미국·국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6%대 돌파 가능성 커

고물가에 불똥 튄 자동차 보험료...당정 "낮춰라" 압박

매일경제

의무보험으로 물가지수 핵심품목
울산 손보업계 "한방 과잉진료 때문", 후사고 5년간 19%감소에도 한방진료비 2.8배 증가

생보업계 재판분리 가속... GA 설립 공략

디지털타임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몇 년 전부터 GA를 설립해 자회사로 두고 있음
상품·서비스의 개발과 판매조직을 분리해 효율성을 찾는 '재판분리'를 강화하기 위함

약세장에 ELS 조기상환 지연...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잔액 10조 '깡충'

이투데이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ELS·DLS) 잔액이 작년 말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남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이 지연되며 상황이 발행을 밀둔 영향

증권사 채무보증, 고금리에도 증가세 여전...한투·KB 최대

뉴스1

상반기말 47조8775억원, 2분기 증가폭 1분기 앞서
메리츠·하이증권 감소...자본 규모별 사업 방향 갈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